

밀레니엄 전환기의 문화이론 비판

A Christian View on Cultural Theories in the Transition
to a New Millenium

김봉균(가톨릭대 교수, 국문학)

I. 머리글

II. 밀레니엄 전환기의 문화이론

1. 혼합적 문화론
2. 이미지 생산과 과실재 이론
3. 쌍방 소통과 가상 현실론
4. 수평적 다문화이론
5. 해체의 문학과 문화론적 문학이론
6. 하이퍼 텍스트와 전자책 이론

III. 전환기의 문화이론 비판

1. 절대적 가치와 일률성의 붕괴
2. 원색적 욕망 부추기기와 실재의 왜곡
3. 윤리적 아나키즘
4. 지적 기만의 문제

IV. 맺음말

Abstract

In this paper, I aim to discuss the cultural theories in the transition period, to wish to probe into sensible Christian cultural theories faced with the problems of the approaching information-oriented society in a new millenium.

Living in the digital information-oriented society, we have horizontal human relations and cultural aspects instead of vertical ones.

The cultural theories in this period can be called intermixtured cultural ones : theory of hyper-reality and intercommunication and virtual reality, horizontal multi-cultural theory, and the theories of deconstructed literature and cultural studies into literature, stemming from postmodernism in the information-oriented society.

These cultural theories and phenomena exert positive and negative influences upon our information-oriented society. Here we have to do a “good fight” against negative ones holding sway of “pure simulacrum” over the truth, dehumanization, alienation, sexual immorality, violation, vulgar cultures, and the absolutization of cultural relativism, especially atheistic cultures and their theories.

For this purpose, we, the Christian intellectuals should try to have a “missionary conversation” with those of secular cultures and such phenomena, cultural pluralism, religious pluralism, and moral anarchism to recover the absolute values, God’s Truth.

I. 머리글

은은한 포성(砲聲)과 화약 냄새로 문을 연 20세기가 저문 지금, 우리는 밀레니엄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인간의 삶과 역사란 끊임없는 선택의 과정이라고 할 때, 전환기에 처한 우리의 선택이야말로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석탄과 석유가 역사 발전의 동력이었던 20세기의 인류는 혁명과 전쟁을 선택했고, 그 결과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인명 살상의 '죽음 체험'을 했다. 21세기의 인류는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정보화로 문명사에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 현상은 이미 시작되었고, 전자·통신기술의 폭발력이 온 지구촌의 문화를 한 시공(時空)에 공존케 하는 기술낙원(Technopia)의 시대를 연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밀레니엄 전환기인 지금 세계는 농업혁명, 산업혁명기와는 또 다른 차원의 큰 변혁의 물결에 휩쓸려 있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물리적인 국경 개념이 무너지고, 시공간은 더욱 압축되어 세계화는 가속화하며, 세계 인식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었다. 이같은 변혁과 함께 21세기는 문화정치학(cultural politics)의 시대가 되리라는 견해에 세계 지성은 동의한다. 근대화·산업화 주도세력의 영향력이 약화하는 가운데 기술력의 배경이 되었던 도구적 이성과, 지구촌에 편재하는 개별 문화간의 간극이 날로 커지고 있다. 다양성의 정도가 더욱 심각해질 이 문화적 차별성을 조절할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문화이론의 발견이야말로 새 세기의 핵심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우선 1970년대 탈구조주의와 해체론의 포스트모더니즘, 페미니즘, 문화 연구 등으로 불리는 20세기 말의 비평이론을

문화이론의 관점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들 이론의 특성에서 포착되는 긍정과 부정의 양가성(兩價性)을 지적한 다음, 기독교적 타당성에 비추어 바람직한 문화이론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II. 밀레니엄 전환기의 문화이론

지금은 다매체, 다문화의 시대이다. 인쇄매체와 음성, 영상매체가 공존하며, 영상매체의 위력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컴퓨터 인터넷은 국경과 통신, 상거래에 관한 개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입체적 영상 그래픽과 멀티 비전은 새 밀레니엄 세대를 매료시키기에 충분하다. 지구촌을 한 시공에 묶을 수 있는 이 다매체 시대가 다문화 현상을 빚는 것 또한 당연한 귀결이다. 따라서 아날로그 시대의 수직적 조직, 명령·복종의 인간관계와 그런 문화는 수평적 조직, 토론·합의의 인간관계와 그런 문화로 바뀐 디지털 시대가 온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 시대의 특성을 규정하는 것은 포스트모던 문화다. 포스트모던 문화 패러다임은 20세기 말의 프랑스와 영미 지성계, 예술계를 풍미한 대표적인 인식론적 틀로서, 새 세기 초의 지배적 문화 담론으로 군림할 것이다. 이제 포스트모던 문화이론의 특성을 밝히고 그 빛과 어둠을 가리며, 크리스천 지성인의 올바른 문화이론을 정립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1. 혼합적 문화론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은 주체의 해체와 미학적 대중주의라는 두 갈래 관점으로 요약된다. 탈중심적 사고(decentered thinking)와 반남근 로고스 중심주의(anti-phallogocentrism)로도 규정되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추구하는 것은 고급 문화(high culture)와 저급 문화(low culture), 중심 문화(core culture)와 주변 문화(marginal culture)의 경계 허물기와 섞기, 남근적(男根的), 가부장적 사고를 거부하는 페미니즘(feminism), 소비자 중심의 산비자(産費者, prosumer) 개념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체계 형성 등이다.¹⁾

이런 요약적 인식은 포스트모더니즘 문화이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그 다양한 문화현상을 일망타진할 만한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운명이요 특성이다. 헤브디지(D. Hebdige)의 다음 고언(苦言)이 그 현저한 예라 할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서로 상충하는 의도가 융화상박하는 곳이며, 개념이 정의되지 않는 곳이며, 이의 효과가 아직도 검증되지 않는 곳이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적 경향과 지적 전통이 연합하는 곳일 뿐더러 충돌하는 장(場)이기도 하다.²⁾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은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려운 혼합성을 띤다. 이는 문자 해체론자로서 비정치적인 데리다(J. Derrida), 담론의 무질서 이론을 부각시킨 좌파 지식인 푸코(M.

Foucault) 등 다양한 지식인들이 이에 가담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헤브디지는 포스트모던 문화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주체의 탈중심화, 정치·문화·실존의 파편화, 단수 권력축에서 복수 권력축으로의 전이, 담론 구조와 의미의 내적 폭발(implosion), 문화적 위계의 붕괴, 핵무기에 대한 공포, 대학의 쇠퇴, 축소된 신기술의 기능과 효능 신장, 장소의 시간으로의 대체, 경박성의 충일, 현전(現前)의 형이상학에 대한 공세, 정서의 고갈, 수사(修辭)의 범람, 상품에의 경도(傾倒), 이미지에의 집착, 베이비 붐 세대가 중년이 되면서 겪는 집단적 허탈감, 인식론에서의 반목적론적(anti-teleological) 경향 등이다.³⁾

포스트모던 문화는 광고, 패션, 만화, 잡지, 청년 문화, 공상과학 소설, 동성애(gay, lesbian) 등 대중 문화, 주변 문화로 간주되던 것들이 음악이나 미술의 고전적 장르와 쌍방 소통의 채널을 가동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고담준론으로 간주되던 문학평론에서도 여성 문학, 동성애 문학과 함께 이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에 이르렀다.⁴⁾

2. 이미지 생산과 과실재 이론

포스트모던 문화의 가장 현저한 특징으로 거론되는 것은 ‘이미지 생산’이다. 정보화 시대의 ‘문화 게릴라’로 불리는 인기 스타라는 것이나 상품 광고가 다 이미지 생산의 전형이다. 이는 이 분야의 대가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의 말대로 ‘과실재(hyperreality)’이다. 이같은 포스트모던 문화기를 과실재의 시대, 모사(模寫)의 시대(simulated age)라 한다. 이 시대의 모사물(simulacrum)은 예술적 모방(mimesis)

이나 재현(representation)의 실체와는 다르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영상매체가 생산한 이미지는 현전(現前), 곧 실체 부재의 이른바 ‘참 가짜(pure simulacrum)’이다.”

보드리야르는 이 과실재의 환상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모조품은 부재(不在)를 현전(presence)으로 제시할 뿐 아니라, 상상을 실제로 내어 보임으로써 현실계(the real)를 상상계(the imaginary) 속으로 흡수해 버린다. 그 결과 상상계와 현실계의 구분은 와해된다.”고 말하며, 그는 이것을 포스트모던 시대와 그 문화의 특성으로 본다.⁶⁾ 조작된 비실재(unreality)인 과실재가 실재를 밀어내는 이 그레섬 법칙은 교환가치가 사용가치를 압도하는 포스트모던 문화의 모순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유통의 주체인 소비자는 상품의 사용가치를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매체 문화가 제공하는 기호와 이미지를 소비한다.

이 시대의 영상매체는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원리에 따라 모든 것을 상품화하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도 과실재의 교환가치로서 상거래의 대상이 된다. 노동객이 머리를 염색하고 의상과 넥타이를 수없이 바꾸어 가며 텔레비전 화면에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이른바 지식정보화 사회의 정치 실상이기도 하다. 이것도 자기의 실재를 상실하고 ‘참 가짜’인 과실재의 상품적 기호와 이미지를 판매하는 포스트모던 문화의 한 장면이다.

개인이든 어떤 집단, 국가의 공신력이 그 ‘참 실재’인 본질적 가치보다 ‘참 가짜’인 과실재의 표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이 시대 문화의 특징이다. 국제 관계도 한 나라의 실체 그 자체보다 국가 이미지의 수준에 따라 형성된다. 세계 각국이 지금 국가 이미지 개선에 총력을 동원할 김새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1994년 5월 이탈리아 총선에서, 다매체 재벌의 총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전진 이탈리아당(Forza Italia)’이 창당 3개월만에 승리한 것은 포스트모던 문화 시대에 미디어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입증하는 전형적인 사례이다.⁷⁾ 그는 퇴폐적인 상업방송 문화의 전파에 앞장서고, 부실 금융 거래는 물론 마피아와의 연계 혐의까지 받고 있는 천민 자본주의자였다. 그에 상관치 않고 이탈리아 국민들은 그의 다매체를 이용한 이미지 메이킹에 철저히 협조했던 것이다. 이는 영상매체에 의한 조작된 민주주의의 도래를 우려케 하는 일대 사건이다.

이제 상품의 판매고는 질뿐 아니라 이미지가 좌우한다. 디자인이 유난히 강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식정보화의 포스트모던 문화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다양한 물질문명 사회의 절정을 지향하는 가운데, 과소비 문화를 조장하는 결함을 드러내며 실질보다 허상(虛像)을 좇는 경박한 인간을 양산(量産)하기 쉽다.

지금은 영상문화의 시대다. 스티븐 스피버그의 〈쥬라기 공원〉은 1년에 8억 5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썬더러 리스트〉의 현장이 관광 붐을 일으킨 것이 그 단적인 예다.⁸⁾ 이 시대의 개인과 단체, 국가가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영상산업의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영상문화를 지배하는 자가 지구촌을 장악하게 되었다. 영상문화 이론이야말로 이 시대의 지배적인 담론이다.

영상문화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 인쇄매체의 꽃이었던 문학 장르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영상매체를 통한 ‘보는 글’과 인쇄매체를 통한 ‘읽는 글’의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고, 후자는 위기에 처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텔레비전이 등장할 때 신문 도태론이 대두되었으나

그 예측은 맞지 않았듯이, 영상매체 시대에도 인쇄매체는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이버 문학(cyber literature)이 대두한 영상문화 시대의 새로운 문학이론 개발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 '문화이론'과의 대화이다. 문화이론과의 대화는 유일한 대안인가? 이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룬다.

3. 쌍방 소통과 가상 현실론

텔레비전의 경우와 같은 과실재로서의 일방 소통 영상·전자매체는 발신자가 소통 수단을 독점하고 수신자를 일방적으로 반응케 하는 종속자로 만든다. 그러나 이제 고도로 발달된 전자 및 컴퓨터 기술은 수신자로 하여금 과실재의 영상 내부에 동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한 과실재로서 다른 과실재와 상호 반응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른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에서 그 대표적인 예를 찾을 수 있다.

이 시대의 첨단 멀티 미디어(multi-media) 기술은 인간의 욕망 속에 떠오르는 세계를 실제와 같이 감지,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상현실을 만들어 낸다. 밀착 안경, 오디오 스피어(audiosphere), 데이터 글립 등의 장비를 갖추고 실내에서 스키, 자동차 운전, 비행기 조종, 우주 여행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이같은 가상현실의 원리는 산업과 의술, 전투체험 등에 이용된다. 컴퓨터로 설계하기(computer-aided design, CAD), 컴퓨터로 제작하기(computer-aided manufacturing, CAM) 등은 그 대표적인 예다. 투어 시스템(tour system), 부엌 가구 시스템, 가상 연주, 가상 공간에서의 화상 통화 시스템 등의 개발은 인간의 삶과 사고방식, 역사 전개 방식

향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가상현실의 의학적 공헌은 현저하다. 자폐증이나 암의 치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편의 등에 도움을 주며, 안마기와 자전거 운동 등의 프로그램 개발을 가능케 한다.

가상현실이 초래할 가장 큰 역기능은 가상 성행위(cyber sex)이다. 바이오센서를 부착한 특수 장비까지 개발할 단계에 이르렀으니 문제는 심각하다고 하겠다. 프로이트 심리학의 미발산 긴장(undischarged tension) 이론의 추종론자들인 가상 성행위 주창자들은 성 해방으로 성 범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편다. 이같은 가상 성행위는 사회의 기초 단위인 부부 중심의 가정이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⁹⁾

또 대화형 컴퓨터(interactive computer) 기술의 개발로 주문형 비디오(video on demand, VOD), 주문형 팩스(fax on demand), 주문형 서적(book on demand, BOD) 등이 출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문형 전자신문인 인터넷 '쌍방향 신문'이 등장했다. 이른바 'N세대', 'X세대'는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지면 전체를 일별한 뒤 필요한 것만 선별하여 볼 수 있는 전자신문을 선호하게 마련이다. 전자신문은 지면이 제한되었던 인쇄매체와는 달리, 무한한 용량의 기사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잡지의 출현도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나아가 전자책의 송출까지 가능해졌다.

지구촌을 품미하는 영상매체에 의한 인지체계(認知體系)의 시각화(視覺化, visualization) 현상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이러한 문화 대변동에 관한 이론의 정립을 위하여 고심해야 할 때다.

4. 수평적 다문화이론

오늘날의 미디어 문화는 사회계층, 성별(gender), 성(sex), 인종의 벽을 허물고 있다. 엘리트 문화와 대중 문화, 고급 문화와 저급 문화, 남성 문화와 여성 문화, 백인 문화와 유색 인종 문화간의 벽과 수직적 위계(位階)가 허물어지게 되었다.

이성(理性)에 대한 저항의 소산인 포스트모더니즘 문화는 모더니즘 문화의 엘리트주의를 거부한다. 미학적 대중주의를 표방한다는 뜻이다. 가령 언어 문화의 정화인 문학의 경우, 고전적 문학 정전(正典) 중심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보편성(universality), 항구성(permanence), 개성(particularity)을 갖춘 특정 작품들만을 정전으로 삼는 것은 백인 남성 엘리트주의가 빛은 착오라는 비판이 미국에서 거세게 일기 시작했다.

다양한 매체들로 분산되고 전세계 대중을 대상으로 문화 생산을 주도하는 미국 현실을 감안할 때, 고급 문학 중심주의를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용인할 수 없다. 특히 대학에서 완고하게 고수하고 있는 고급 문학 중심주의는 고급 문화와 대중 문화의 이분법을 낳으면서, 고급 문화를 방어하는 이 데올로기들을 고착시켜 우리의 의식과 감각을 제한해 왔다. 문학 정전 중심주의에 따라 훌륭하고 가치 있는 미국 문화의 정수라고 주장된 위대한 문학 작품들이 거의 전부 백인 남성의 작품이라는 점은 무엇을 시사하는가?¹⁰⁾

이것은 한 미국 문화학자의 문화이론이다. 이 주장에는 두 가지 포스트모더니즘적 과제가 대두되어 있다. 하나는 백인을 우월시하는 문화 인종주의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성중심 문화에 대한 페미

니즘의 응전 문제다. 이 글의 필자는 19세기 이후 줄곧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받아온 스토우 부인의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마거리트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작품을 문학가들이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은 것은 작가가 여성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것은 여성과 소수 인종을 차별하는 미국 문화 전반의 문제라는 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후기 구조주의 이론과 함께 대두된 페미니즘은 1980년대 중반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에 의하여 여성의 전환기를 맞으며, 이제 서구 사회는 물론 제3세계 '여성학'의 핵심 과제로 떠올라 있다. 이는 해체주의(deconstructionism), 마르크시즘과도 접맥되며, 여성해방 운동에 바탕을 두고 있다. 페미니스트의 여성관은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는 명제를 지지하는 시몬 보봐르 등 여성학자나 여성 운동가들의 관점에서 출발한다. 미국에서 ‘맨 홀(man hole)’은 ‘퍼슨 홀(person hole)’로 써야 하고, 학생들은 작문 시간에 문장의 주어를 ‘그/그녀(He/She)’로 해야 한다. 최근 한국에서 이문열의 소설 〈선택〉을 두고 작가와 여성학자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것은 한국 사회에서도 페미니즘 문화의 기세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 준다.¹¹⁾

고급 문화와 대중 문화의 만남은 이제 불가피해졌으나, 가령 〈키치〉(kitsch)와 같은 통속 문화와 차이코프스키의 〈비창〉이나 재코매티의 〈손가락질하는 사나이〉 같은 조형예술이 어떤 형태로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새 세기에 우리는 폐쇄적 문화정치학으로는 생존할 수 없이 되었다. 실체론보다는 관계론이, 순혈주의(純血主義)보다는 혼혈주의(混血主

義)가 득세할 것이다. 이미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른바 ‘퓨전 요리’ 처럼 바야흐로 혼합문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문화가 ‘충돌’이 아닌 ‘화해로운 만남’의 관계로 융화하는 것이 형식 논리상으로는 바람직하나, 새뮤얼 헌팅턴식 ‘문명의 충돌’이 우려된다. 앞으로 이질적인 문명, 문화의 충돌은 불가피하며, 미시적으로 폭력적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층선은 이슬람 이웃의 정교, 힌두, 아프리카, 서구 크리스트교 문명 사이에 놓여 있으며, 거시적으로는 서구와 비서구의 양상을 보이면서 이슬람과 기타 아시아, 이슬람과 서구 사이에서 충돌이 가장 격렬하게 나타나리라고 그는 예측한다. 공산권의 몰락으로 비서구권은 민주주의, 시장 경제, 제한된 정부, 인권, 개인주의, 법치주의 등의 서구적 가치에 동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비서구권의 지배적인 태도가 회의주의와 격렬한 반발의 양상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헌팅턴의 예견은 주목할 만하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서구 문명은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와의 관계에서는 갈등의 소지가 높지 않고, 특히 라틴 아메리카와 서구의 관계는 원만할 것이다. 러시아, 일본, 인도와 서구의 관계는 협력과 갈등의 요인을 안고 있어 서구 문명과 이슬람, 중국 문명 사이에서 그네 역할을 하리라는 것이다.¹²⁾

이에 대하여, 독일 헤센 평화 및 갈등 연구소장 뮐러는 『문명의 공존』에서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 이론을 반박한다. 그는 새뮤얼 헌팅턴이 그의 이론 전개에 불리한 논거는 제외하고, 유리한 것만 채택하는 오류를 범하였음을 논증해 보인다. 헌팅턴의 문명 충돌론은 도그마이며, 서구에 적대적인 문명에 대한 가설은 허구라고 본다. 그의 충돌론은 공산주의에 대체될 ‘새로운 적’ 찾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다.¹³⁾ 그러나 인류의 미래사를 예견하기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¹⁴⁾

아무튼 미국식 영어와 컴퓨터 인터넷을 주축으로 한 서구 문명의 보편주의는 비서구 사회에는 정보 제국주의의 기미와 함께 문화 제국주의로 다가온다. 한국의 경우 이에 대한 충돌의 단계를 지나 서구 문명의 수용 역량은 충분하다. 다만 샤머니즘적 기층 문화, 유·불·도교의 중층 문화, 서구의 과학문명과 기독교 문화간의 관계정립 문제는 본질적인 과제로서 남는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막스 베버(Max Weber)가 말하는 ‘동양 합리주의’다. 서양의 청교도적 합리주의는 세계에 대한 ‘합리적 지배’, 유교적 합리주의는 세계에 대한 ‘합리적 적응’을 의미한다고 베버는 파악한다.¹⁵⁾ 서양의 합리주의는 그 모델인 신(神)의 질서로써 세계를 변혁하려 한 내세적 초월주의다. 반면에 동양의 합리주의는 현실세계에 내재하는 초월적 질서를 합리화함으로써 현실세계의 모순 극복을 위한 규범적 척도를 제시하는 현세적 초월주의다.

동양적 합리주의는 ‘영원성과의 결별과 유한성으로의 이행’을 지향하는 포스트모더니즘과 제휴할 가능성이 크다. 공·맹·주자의 현세적 합리주의, 노자·장자의 무위자연(無爲自然) 사상과 포스트모더니즘과의 접속은 이미 시작되었다. 동·서양 비교 사상론의 정립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영어, 중국어 문화권이 주도할 것으로 예견되는 21세기 문화이론의 정립이 요청되는 것이다.

5. 해체의 문학과 문화론적 문학이론

니체와 하이데거의 철학적 담론에서 연유된 해체론(deconstruc-

tionism)은 1966년 10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데리다(Jacques Derrida)의 “인문 과학 언술 행위에서의 구조, 기호, 작용”에 의하여 촉발되었다. 그는 “중심은 전체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지만, 그것은 (전체의 일부분이 아니므로) 전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의 중심은 어느 곳에나 존재한다. 중심은 중심이 아니다.”¹⁶⁾고 선언했다. 니체에 맥이 닿은 후기 구조주의자 데리다의 이같은 선언은 종래의 로고스 중심적 사고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해체주의 문학은 그러기에 ‘의심하기 시학’에서 출발하며, 절대적 진리와 선을 부정한다. 인식적, 도덕적 ‘의심하기 시학’에 의존하는 해체주의 문학은 언어에 대한 회의로 귀결된다. 언어만으로 현실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언어 외의 온갖 기호까지 총동원된다. 가령, 해체시의 경우 현실은 단편적으로 표절, 편집되어 있을 뿐, 거기서 통일성 있는 논리는 짚이지 않는다. 왜곡된 현실을 왜곡되게 표현하는 해체시의 정체는 비속어와 욕설 따위가 난무하는 언어의 테러리스트다.¹⁷⁾

1980년대 한국 문학사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은 본격적인 노동문학의 등장이었다. 1920~30년대 카프 문학, 해방기의 ‘문학가 동맹’의 문학, 1970년대 민중문학의 흐름을 계승한 노동문학의 등장은 ‘세계의 유죄성’을 선포하고 계급 해방으로 세계의 변혁을 도모하려는 마르크스주의적 변증 사관의 지하 운동적 성격을 결산한 의미를 띤다. 예컨대 노동 운동가 출신 박노해의 시집 『노동의 새벽』이 우리 문학사에 던지는 의의는 심상치 않다. 하이데거, 마르크스, 막스 베버는 21세기에도 영향을 끼칠 주요한 지성임을 간파한 고르바초프의 최근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마르크스주의와 그 아류의 사상은 아직 극복되지

않았다.

또한 1980년대 우리의 도시는 해체시와 많은 부분 유사하나, 노동 문학의 정치투쟁 편향성과 해체시의 언어미학적 황폐성을 극복한 새로운 문학형식이다. 도시문학은 지난 3백년간 서구 사회에서 개인과 국가의 운명을 지배해 왔다. 도시생활(urbanism)은 서구 문화의 심장부에 자리해 있는 것이고, 우리의 경우도 이제 본격적인 도시문학 시대를 맞이했다.

현대 도시는 상업화, 산업화, 세계화의 단계를 거쳐 발달했고, 이에 따라 코믹 리얼리즘, 로맨틱 리얼리즘, 자연주의,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을 낳았다. 유토피아 소설, 고딕 소설, 탐정 소설, 과학 몽상 소설, 디스토피아 소설(dystopian novel)도 도시문학의 하위 장르이다.¹⁸⁾

우리의 경우 1990년대의 도시는 특유한 도시적 감수성으로 독자들에게 직립해 든다. 도시는 정치적, 경제적 모순으로 오염된 도시의 현실과 소외감을 리얼리즘의 예리한 감수성으로 묘파하는 ‘현실 참여적 모더니즘시’다. 도시의 악마적 이미지에 대한 관습적 사고를 해체하고, 이데올로기의 허구로부터 구체성을 건진 것이 우리의 도시시라는 지적¹⁹⁾은 주목에 값한다. “나는 결코 죽지 않았는데 / 내가 없다.”는 도시시의 한 고백은 이 시대의 현실적 진실임에 틀림없다. 다만 그 유희적 경박성, 욕설·야유·요설·산문체와 풍자적 톤의 단명성(短命性)에는 문제가 있다.²⁰⁾ 일체의 신성(神聖)·숭고성·초월성과 절대진리에 의혹을 보내고 이를 해체하는 도시시의 전도는 어둡다. 그러나 도시시의 참여적 모더니즘의 감수성과 현실인식은 새 세기 문예미학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또 1990년 9월과 11월에 각각 간행된 김수경의 〈주유중〉과 하일지의 〈경마장 가는 길〉은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의 한국적 양상을 대표적으로 보여 준다. 〈주유중〉은 1980년대의 억압 체제를 배경으로 하여 젊은 남녀가 마약과 성에 탐닉하는 이야기다. 이는 한 연구자가 평가한 바와 같이 ‘인간의 본질적 죄성에 대한 성찰’에 눈멀어, ‘인간의 악행을 불완전한 세계의 문제’로 환원함으로써 믿음·소망·사랑이 소멸한 종말적 세계와 그런 인간상을 그렸다. 〈경마장 가는 길〉역시 참다운 커뮤니케이션, 곧 사람과 참다운 만남이 없이 이루어지는 프랑스 유학생 남녀의 조건부 성관계를 줄기로 한 소설이다. 포스트모더니즘적 인간 관계의 파탄상을 증거한다.²¹⁾ 희생자, 구원자, 적대자 주변 이야기로 된 대중 문학, 탐정 소설, 과학 공상 소설, 사이버 문학 등의 도전 역시 만만치 않다.²²⁾

다음, 문화론적 문화이론은 이 시대의 주요 쟁점이다. 이 이론의 특성은 이스트호프(Antony Easthope)의 ‘문학 연구에서 문화 연구으로’에 집약적으로 진술되어 있다. 문학 연구에서 비롯되어 문학 연구를 넘어서는 문화 연구는 탈중심적, 상대주의적, 다가치적 패러다임의 산이다. 이 연구를 지배하는 문화이론은 기존의 문학이론이 미학적, 도덕적 가치 기준으로 ‘부르주아적 세계관을 재생산하는 교육 장치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고 본다. 또 대중 문화를 배제하며 특권을 누리고, ‘보편성’을 담보로 하여 ‘가상적인 통일성의 효과’를 산출하면서 이로써 현실의 모순을 해결하는 일종의 ‘허구 효과’를 거둔 것이 기존의 문화이론임을 지적, 비판한다. 문화이론은 노동자 계급과 대중의 문화에 기반을 두며, 기호학·사회학·역사 유물론·정신 분석학·철학 등과 학제적 연구를 지향한다.²³⁾

문화를 텍스트내적 폐쇄 체계로만 파악하여 자율성(autonomy)을 과도히 강조한 형식주의 문학론을 보완, 수정한 것은 문화이론의 공적이나 계급주의적 시각에 기반을 두는 한계성을 보인다.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문학의 쌍방 소통 체제는 작가와 독자가 협력하여 '작품 생산'에 참여하게 한다. 창작 주체와 객체의 이같은 쌍방 소통적 텍스트 제작은 주체의 해체, 교란 현상을 빚을 것이다. 이것은 고전적 '창작'의 본질에 대한 심각한 논란을 빚게 된다. 또 중앙 집권적 문단의 헤게모니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6. 하이퍼 텍스트와 전자책 이론

밀레니엄 전환기인 이 시대의 경이적인 문화 변동은 하이퍼 텍스트(hypertext)와 전자책의 출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컴퓨터 문학, 통신 문학, 키보드 문학, 페이퍼 프리 문학 등으로 불리는 하이퍼 텍스트 서사 담론의 경우를 보자. 하이퍼 텍스트는 본디 한 작가와 다수의 독자가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 플롯 전개의 스토리 라인(story line)에서 대화하는 관계맺기를 시도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작가와 독자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성립되고 대화가 역동성을 띠고 전개되면서 작가와 독자는 상호 주체적인 위상 변이(位相變異)를 일으키게 된다. 이른바 '쌍방 소통의 텍스트 생산 활동'이 활력을 얻는다.

하이퍼 텍스트의 플롯 전개는 선조성(線條性)을 보이는 종이 인쇄의 서사 담론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스토리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그 시퀀스(sequence)가 다양한 선택의 갈래를 지으며 제공된다. 이때 접속되는 스토리 라인의 경우의 수가 늘면서 문학의 서사는 게임의 양상을

떠기도 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²⁴⁾

사이버 문학에서는 신인 등단의 까다로운 조건이 없다. 누구나 문인으로 등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자유롭게 등장한 많은 작가들이 독자들과 수평적 관계를 맺으며 쌍방 소통을 함으로써, 스토리 라인의 생산과 비평에 참여하는 다수의 독자들과 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협동적 창작과정은 '텍스트 생산의 대중적 동참'이라는 민주적 장치임과 아울러 '창작'의 본질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생산된 텍스트'의 창작 주체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 등이 제기되게 마련이다.

하이퍼 텍스트는 전통적 종이 인쇄 텍스트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공헌한다. '경우의 수'로 계측되는 가능한 여러 스토리 라인으로 시공(時空)의 한계를 넘어 체험의 양상을 다변화할 수 있다. 특히 습작기 문학도들의 창조적 상상력 계발, 즉 문학창작 교육의 자료로서 그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²⁵⁾

움베르토 에코는 전통적 종이 텍스트를 클래식 음악에, 하이퍼 텍스트를 즉흥적인 재즈 음악에 비유했다. 이것은 이 시대의 문화현상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클래식 음악과 재즈와 록, 랩 음악과 공동의 광장에서 '만남'의 '기적'을 창출하는 장면을 상상하는 것은 크나큰 유열(愉悅)일 수 있다. 그러나 음악 전반을 하향 평준화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대중주의 미학에 우리의 궁극적 소망을 무작정 걸 수는 없다.

사이버 공간에서 빛어지는 하이퍼 텍스트의 폭력과 외설은 인간의 저급한 욕망(sensual pleasure)을 부추기는 통속성을 텍스트 도처에 만연케 할 것이다. 하이퍼 텍스트의 찰나성, 경박성의 지평에서, 작가

는 상승 지향의 '위대한 정신적 지주(支柱)를 가늠해야 한다. 하이퍼 텍스트의 시대 한계적 센세이셔널리즘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사이버 공간, 하이퍼 텍스트의 대화 속에서 적극적으로 투여(投與)되어야 한다.

소리와 움직이는 영상까지 실어 날르는 사이버 공간의 하이퍼 텍스트에서 시공(時空)은 세계화·우주화 하고, 등장인물 또한 다국적화(多國籍化)·혼혈화(混血化)할 것이다.

또한 1999년 말 미국이 소설 10권 용량의 '로켓 e·북'을 비롯한 '에브리 북,' '밀레니엄 리더,' '소프트 북' 등 전자책을 내어 놓으면서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바야흐로 전자책 시대를 열고 있다. 소리와 동영상까지 실은 전자책은 전통적 종이책 시장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는 여러 출판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만든 everbook.com, wisebook.com, kimyoung.com, booktopia 등이 그 실체이다.

그럼에도 종이책은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 새 천년에는 종이책과 전자책이 장단점을 서로 보완하며 공존할 것이다. 글 쓰는 이와 읽는 이는 어느 한쪽의 편들기로 인생을 낭비하는 어리석음에서 자유로워야 한다.²⁶⁾

이제 하이퍼 텍스트와 전자책은 외면해서는 안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들의 폭력과 외설, 찰나성과 경박성, 무신론적 메시지 등에의 응전력(應戰力)을 그리스도인들은 기르고 실천해야 한다. 하이퍼 텍스트와 전자책의 '생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使徒)로서 적극 참여할 때, 새 천년의 인류 문화는 '영원'의 실마리에 접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전환기의 문화이론 비판

밀레니엄 전환기 문화이론의 골간은 아날로그 시대의 수직적 지배·복종의 문화 원리가 디지털 시대의 수평적 문화 원리로 전환되는데 있음은 이미 말한 바 있다. 거듭 말하거니와 다매체, 다문화의 원리를 지배하는 포스트모더니즘 문화 패러다임의 요체는 주체의 해체, 대중주의 문화론이다. 이것은 형식 논리상으로 세속적 자유 평등주의의 승리로 보인다. 중심이 해체되면서 주변 문화, 종속 문화가 주변성과 종속성에서 해방되고, 지구촌의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현란한 향연이 펼쳐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여기에는 심각한 함정이 감추어져 있다. 절대적 가치와 일률성의 붕괴, 실재의 왜곡, 윤리적 아나키즘 등은 전환기 문화이론의 내면에 잠복한 치명적 결함이다.

1. 절대적 가치와 일률성의 붕괴

단일 문화주의(monoculturalism)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로 전환된 곳에서 문화 절대주의는 설 자리를 잃는다. 절대주의를 부정하는 상대주의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고 한 프로타고라스에서 유래하며, 지동설의 코페르니쿠스, 뉴턴을 수정한 상대성 이론의 아인슈타인, 양자 이론의 막스 플랑크·닐스 보어·하이젠베르크·드브로이·막스 보른, 특히 불확정성의 원리의 하이젠베르크 등이 과학적 상대주의의 계보이다. 이어 토마스 쿤(Thomas Kuhn)의 패러다임 이론, 페이아벤트(Pey Abend)의 인식론적 아나키즘에 이르러 절정에 이른다.

콰인(Quine)의 인식론적 상대주의, 넬슨 굿맨의 급진적 상대주의,

프리드리히 쉐라이어마허 · 빌헬름 딜타이 · 마르틴 하이데거 ·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의 해석학적 상대주의 이론은 현대 지식인의 인식 체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포스트구조주의와 해체주의 이론을 중심축으로 하는 포스트모더니즘 문화이론은 해체 이론자 자크 데리다, 진보 · 해방 · 복지 등 거대 담론의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J. F. Lyotard), 서구의 지적 전통 해체론의 리처드 로티(R. Rorty)를 비롯한 라캉, 푸코, 보드리야르, 들뢰즈(Deleuze), 제임슨이 주도해 왔다.²⁷⁾

포스트모더니즘의 다문화주의는 문화 제국주의, 문화 패시즘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 서로 다른 문화는 우열이 아닌 차이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관점은 모든 문화가 다 가치 있다는 가치 무정부 상태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고, 마침내 가치의 일률성(一律性, Einheit)을 붕괴시킨다. 가장 심각한 것이 유일신의 절대성, 영원성, 초월성이 부정되는 불상사다.

가령, 이 이론에 따를 때 ‘신(神)’은 ‘실(絲)’과 기표(記標, signifiant)의 자의적(恣意的) 차이에 따라 그 의미가 확정될 따름이다. 종래에는 ‘현전(現前)’과 ‘부재(不在)’ 사이에 ‘벽’이 존재했다. 기표와 기의(記意, signifi)는 1대 1의 관계에 있으며, 이 관계는 기의가 결정하는 것으로 여겼다. 이런 관계 확정의 궁극적 실체는 ‘초월적 기의’로서, 이것은 신이었다. ‘신(神)’은 곧 ‘초월적 기의’로서의 신을 의미했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문화에서 신이 신일 수 있는 근거는 초월적 기의가 아니라, 다른 기표와의 차이에 있을 뿐이다.²⁸⁾ 다시 말하여 포스트모던 문화에서는 ‘수평/수직’, ‘시간/영원’, ‘현실/초월’의 대립관계가 깨어지고, ‘수평, 시간, 현실’만 남는다. 수직의 하이어나키나 영

원과 초월, 구원의 종교는 소멸한다.

만일 새 세기에도 포스트모던 문화가 세계를 지배한다면, 수평선과 수직선의 교차하는 좌표에서만 삶과 역사의 구원이 있다는 기독교의 십자가 상징은 소실되고 말 것이다. 우리의 경우,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 상대주의를 절대화하여 사머니즘(무속), 유·불·도교, 기독교 문화를 동일 지평에 배열한 자리에서 가치 동일성을 주장한다면, 기독교 진리의 근본이 동요할 수밖에 없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 다원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는 비기독교 문화와의 ‘선교적’ 대화가 긴요해졌다.²⁹⁾ 비교 종교학, 비교 문화론의 중요성이 그만큼 증대되었다는 뜻이다. 기독교 신학은 물론 비기독교와 그 문화의 특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얻고 서야 선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우선, 통합적 사고의 소산인 동양 문화와 분석적 사고에서 빚어진 서양 문화의 차이점부터 연구할 필요가 있다.³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의식(意識)의 표층부에 자리해 있는 한국의 기독교 문화는 그 중층, 기층을 흔들어 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는 아직 진정한 기독교 문화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진실한 고백일 것이다. ‘참회록’ 한 권 없는 한국 문학사가 그 현저한 예라 하겠다. 한국 기독교의 질은 기복성(祈福性)과 광신(狂信), 이단(異端)에 대한 잦은 시비는 무속 신앙

의 부정적 영향 때문이다. 무속 문화는 3계 사상(三界思想)의 기독교적 유사성과 신자의 '지성(至誠)'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개인과 집단의 축복을 반대 급부로써 가늠하며, 광기(狂氣) 서린 엑스타시와 몰교리(沒敎理), 몰윤리(沒倫理)를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인에게 무속 신앙은 알라 · 브라만 · 니르바나의 이슬람교 · 힌두교 · 불교 문화와 함께 '선한 싸움'의 대상이다.³¹⁾

2. 원색적 욕망 부추기기와 실재의 왜곡

원색적 욕망 부추기기는 이 시대 문화로의 큰 쟁점이다. 또 실재의 왜곡은 영상매체가 주도하는 이 시대의 풍속도가 되었다. 장 보드리야르가 '과실재'로 명명한 이 '참 가짜'가 한 시대를 지배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같은 욕망 부추기기와 실재 왜곡의 주역을 담당하는 것은 대중 문화 장르다. 문화 연구나 문화 유물론 등 새 문화비평의 대상이 되는 문화 매체에는 이들 대중 문화의 장르와 매체들이 있다. 만화,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 대중 음악, 신문, 광고, 잡지, 대중 소설 등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 계층, 타민족, 식민지와 탈식민지, 제3세계, 제4세계의 문화까지 다루는 것이 새로운 문화비평이다.³²⁾ 이는 그람시(Antonio Gramsci)의 헤게모니 이론에서 보듯이 긍정적인 면이 많다. 헤게모니 이론은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에게 수직으로 행사하던 힘의 체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변화시켜,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가 피지배 계급의 참여로 이루어진 '협상'에 의해 조정된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영상매체 중심의 이 다매체 시대를 지배하는 광고이다. 소비 시

대의 광고는 인간의 원초적 욕망, 원초아(原初我, Id)까지 자극하여 과잉 소비를 부추기는 것뿐 아니라 실재를 왜곡하는 데 문제가 있다. 밀란 쿤데라(Milan Kundera)의 말처럼 다매체의 이 전환기는 이미지와 이데올로기가 통합된 이른바 ‘이마폴로지(imagology)’의 시대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다.

매체에 관한 마셜 맥루한(Marshall McLuhan)의 『미디어의 이해』(Understanding Media)가 출간된 20세기 후반부터 2M, 3S의 시대적 특성³³⁾을 두고 논란을 벌였고, 그것은 이 시대의 현실 진단에도 유효하다. 예컨대 식품 광고는 으레 성적 욕구에 유추하여 표현하되, 다른 광고에도 에로티시즘 내지 성이 이용된다.

포스트모던 문화의 ‘주체의 해체’ 현상은 개인의 종말, 자아의 정체감 소멸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개인은 자기 정체성(self-identity)을 잃고 타자 지향적(other-directed)이고 대세에 순응하는 삶을 산다. 미학적 대중주의는 인간을 통속 문화에 매몰된 속물(俗物)로 전락시키며, 원본의 고유성에 아랑곳하지 않는 혼성 모방(pastiche)의 양산(量産)에 영합하도록 만든다.³⁴⁾ 문화의 이러한 하향 평준화의 세계에서 하르트만이 말한 숭고미나 우아미는 오히려 타매의 대상이 된다. 타락한 성 문화의 범람은 밀레니엄 전환기의 문화가 극복해야 할 핵심 과제이다.

하향 평준화된 통속적 대중 문화와 ‘참 가짜’인 과실재는 이제 이 시대 문화 전반의 핵심에까지 관여한다. 심지어 교육과 종교에까지 침입하여 그 문화가 통속화할 위기에 처하여 있다. 고급 문화와 대중 문화의 융화가 새 문화 창조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때도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폐해는 심각하다. 또 과실재가 실재를 구축(驅逐)하는 이

그레섬 법칙에 항거하기 어려운 것이 이 세대 문화의 대세이다. 기독교 문화 관계자들이 이 시대 문화의 통속성과 과실재성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창 1:25) 세계로 인도하기에 고심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 하겠다.

3. 윤리적 아나키즘

전환기의 문화 상대주의가 내포한 가장 큰 문제점은 윤리적 상대주의이다. 윤리는 인간의 삶에 고유한 문화현상이며, 윤리적 가치는 모든 가치의 최상위에 자리한다. 정보 고속도로가 발달된 이 시대에 지구촌의 여러 문화가 교류하는 과정에서 그 가치관과 윤리적 규범이 충돌을 빚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필요한 것은 보편적 윤리 규범이다.

가치중립적, 실증주의적 문화인류학은 문화 상대주의를 낳는다. 그러나 문화는 우열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없다는 문화 상대주의를 절대화할 경우, 예술작품은 물론 윤리적 가치 면에서 심각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가령, 개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하는 음식문화는 상대주의 문화관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유태인에 적대적인 독일 문화, 침략성이 잠복한 일본 문화, 노예 제도 · 아동 학대 · 남녀 차별의 문화를 문화 상대주의적 가치관으로 허용할 수 있겠는가?³⁵⁾ 여기에 문화 상대주의적 가치관을 적용한다면, 그것은 윤리적 아나키즘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류 문화에 보편적인 윤리적 규범은 있는가? 그것은 진리의 일률성에 의거한 고등종교 윤리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가령 기독교의 십계명 중 제5 · 9계명의 경우 통시적, 공시적으로 보편적인 윤리

규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간음·도적질을 하지 말라는 명령, 금지 규범은 지구촌의 대다수 문화의 호응을 받을 것이다. 다만,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안중근 의사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성 윤리가 극도로 문란해진 이 시대 우리 사회는 '간음'의 반윤리성에 무감각해져 있다. 이것은 이 시대 우리 문화의 병증이지 기독교 윤리 규범이 보편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순결은 시공을 넘어서는 절대적 가치라 할 것이다.

이제 컴퓨터 범죄, 임신 중절, 유전공학을 응용한 생명복제 같은 과학주의의 새 문명기를 맞이하는 이 시대의 윤리적 규범은 생명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 절대권을 선포한 성경의 진리 안에서만 정당성을 얻을 수 있겠다. 찰스 다윈, 허버트 스펜서적 진화론, 진보주의 문명사의 정점에 선 신자유주의 문명은 무한 경쟁을 기본 원리로 삼는다. 그것은 적자 생존의 강자를 위한 규범을 우선시하며, '힘이 정의다'는 식의 정글의 법칙을 정당시한다. 이 시대의 문명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문화 상대주의의 세계에는 빛과 그늘이 있다. 그 빛과 함께 그늘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한다. 어둠의 자아가 견인하는 반윤리의 길, 저 세상으로 갈 것인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횡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딤후 3:2)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딤후 3:4).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딤후 4:9-11).

포스트모던 문화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기독교 유일신 사상과 그 문화를 붕괴, 해체시키는 것이다. 영상매체와 물질문명의 물신주의(物神主義)가 우상화되는 밀레니엄 전환기는 무신론(無神論)과 현세주의 세속 문화가 위세를 누리고 있다. 유일신 사상의 기독교와 그 문화는 큰 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이 시대의 남녀노소, 특히 청소년층은 경박한 전자놀이 기구와 영상매체에 현혹되어 세속적 쾌락에 몰입해 있다. 지금은 그들이 버리고 떠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할 창조적 문화이론이 급히 정립되어야 할 때다.

4. 지적 기만의 문제

최근에 포스트모더니즘의 지적 기만(知的欺瞞) 문제가 충격파를 던졌다. 물리학자 앨런 소칼(Allan Sokal) 등이 프랑스의 후기 구조주의자 곧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과학적 엄밀성을 위반하였음을 비판하고 나온 것이다. 저명한 포스트모더니스트인 라캉, 크리스테바, 보드리야르, 들뢰즈 등이 '본래의 맥락에서 완전히 벗어난 과학적 개념과 어휘'를 써서 1970년대 이후의 세계 지성계를 그릇 인도하였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들은 자크 데리다의 저술에서는 과학에 대한 관심의 증거를 찾아

낼 수 없어 논의에서 제외했고, 수학에 관심을 크게 보였던 초기 크리스테바의 저술을 분석적으로 비판하며, 보드리야르, 들뢰즈, 가타리, 비빌리오 등의 상대성 이론, 양자 역학, 카오스 이론 등에 대한 ‘현란한 언급’은 극히 피상적이며 수없이 많은 오류를 저질렀다고 비판한다.

소칼 등의 지적에 따르면, 가령 정신 분석학자 라캉은 무리수와 허수를 혼동하는 수준에서 수리 논리학과 언어학의 접맥을 시도한다. 그 뿐 아니라 합집합, 스톱의 정리, 통일장 이론, 부르바키, 쿼크, 코페르니쿠스와 케플러, 관성, 수학적 형식화 등의 전문 이론이 속출하며 자기 이론을 탈대중화한다. 소칼은 수학 이론에서 갑자기 정신 분석학으로 비약하는 라캉에게 놀라면서, “인간의 발기 기관이 $\sqrt{-1}$ 과 동일시되는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우리는 참담한 심경을 누를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들뢰즈는 ‘카오스’라는 술어를 아무런 해명도 없이 그릇되게 사용하였으며, 양자 역학 이론도 잘못 쓰고 있음을 증명하여 보인다. 소칼 등은 이들 맹종하는 피상적인 지식인과 그 비판자들을 함께 비판한다.

많은 사람들은 포스트모던 담론의 오만과 공허한 장광설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문장들을 모두가 앵무새처럼 되뇌는 지식 공동체의 딱한 모습에 그저 짜증이 났을 뿐이다.⁴⁶⁾

그들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밀레니엄 전환기의 이 시대 문화이론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IV. 맺음말

인류 문명사는 지금 농업혁명, 산업혁명을 지나 정보혁명을 맞이하였다. 지금은 다매체 · 다문화 시대이고, 컴퓨터 · 비디오를 매체로 한 영상문화가 주도하는 새 문명사가 펼쳐지고 있다. 아날로그 시대의 수직적 조직과 명령 · 복종의 인간관계와 그런 문화가 수평적 조직과 토론 · 합의의 인간관계와 그런 문화로 전환되는 디지털 시대가 온 것이다.

밀레니엄 전환기 문화이론은 이같은 문명사 변혁의 양상을 반영하는 포스트모던 문화이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기서 고찰한 혼합적 문화론, 이미지 생산과 과실재 이론, 쌍방 소통과 가상 현실론, 수평적 다문화이론, 해체의 문화과 문화론적 문화이론, 하이퍼 텍스트와 전자책 이론 등이 그 특성 목록이다. 주체가 해체되어 탈중심화하고, 권력의 축이 복수화하여 문화의 수직적 위계가 붕괴하며, 수사가 범람하고 문화의 경박성이 일반화하는 등의 특성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에 실체를 위장한 과실재의 이미지가 양산되어 상상계와 현실계의 구분이 와해되며, 문화이론에도 그레섬 법칙이 작용함으로써 ‘참 가짜’가 실재를 구축(驅逐)하는 불상사가 빚어진다. 이는 교환가치가 사용가치를 압도하는 포스트모던 문화의 모순이다. ‘말씀’의 진리 회복을 위한 창조적 문화이론의 개발이 요청된다.

첨단 멀티 미디어 기술이 만들어낸 가상현실은 의학, 군사, 교육 등 다방면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반면, 가상 성행위 등으로 인간의 품위 상실은 물론 가정의 기본 단위가 동요하는 등의 역기능을 빚는다. 수평적 다문화 사회가 될 새 세기에는 폐쇄적 문화이론으로는 생존할 수

없게 된다. 실체론보다 관계론, 순혈주의보다는 혼혈주의가 득세할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문화의 충돌보다 주체의 회복과 함께 화해와 만남을 위한 '선교적 대화'에 바탕을 둔 기독교 문화이론과 그 담론의 개발이다.

요컨대 성, 폭력, 상업주의와 상대주의의 절대화로 치닫는 전환기의 세속적 문화이론은 하나님 '말씀의 문화이론'으로 거듭나야 한다. 절대적 가치와 일률성을 회복함으로써 세속사의 문화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윤리적 아나키즘의 종말론적 문화이론을 극복해야 한다. 지금 크리스천 지식인, 문화인들에게 말씀의 진리 복원에 공헌할 '창조적 문화이론'의 개발을 위해 세속 문화이론가들과의 '선교적 대화'와 '선한 싸움'이 요청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아울러 찰스 다윈적 진보주의와 속도 전쟁에 휘말린 이 역천(逆天)의 문명사에 제동을 걸 새로운 문화 기제(文化機制)의 구축이 요청된다. 반성적 사고(反省的思考)와 무관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사색과 명상과 기도를 통한 자기 정체성 회복의 장을 마련할 새 기독교 문화이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 퇴폐문화의 제국주의적 발호, 다문화주의를 위장한 정보 독점국의 문화 획일주의, 특히 폭력과 퇴폐적 성 문화의 범람에 맞선 대응 기독교 문화의 정립은 이 시대의 시급한 과제이다.

註

1. Peter Brooker, *A Concise Glossary of Cultural The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Inc., 1999, pp. 174-176.
2. Chris Jenks, *Culture*, London: Loutledge, 1993, p. 137.
3. *Ibid*, pp. 137-138.
4. Julie Rivkin & Michael Ryan(ed.), *Literary Theory: An Anthology*, Massachussets, Blackwell Publishers Inc., 1998, pp. 527-776.
5. *Jean Baudrillard, Selected Writings*, ed., by Mar Poster, Cambridge: Polity Press, 1988, p. 70.
6. 이정호, 『포스트모던 문화 읽기』,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p. 24에서 재인용.
7. 베를루스코니는 텔레비전 방송사 3개, 정치 주간지 2개, 주간지 60개, 월간지 16개, 잡지 34개의 소유자로, 이탈리아 시장의 50%를 점유한 광고회사 체인, 극장 300개, 건설회사, 증권회사, 이탈리아 제2의 백화점, 슈퍼마켓 체인, 거대한 신문 출판 그룹인 몬다도리까지 운영하며 밀라노 축구팀까지 맡고 있었다. 이정호, 앞의 책, p. 28 참조.
8. 위의 책, p. 28 참조.
9. 이정호, 앞의 책, P. 33 참조
10. 태혜숙, 『미국 문화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증명, 1997, p. 8.
11. J. Rivkin & M. Ryan, op. cit., pp. 515-573.
12. Samuel P. Huntington, 이희재 역,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서울: 김영사, 1996, pp. 243-245 참조.
13. <동아일보>, 2000. 2. 19. B1 참조.
14. 다음은 빛나간 예측의 예들이다. ① 20C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카네기). ② 물리학 법칙은 다 발견되었다.(노벨상 수상자 앨버트 마이켈슨, 막스 본) ③ 우주에서 로켓이 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뉴욕타임스 신문, 1920) ④ 원자탄은 비행기로 나르기에는 너무 무겁다.(아인슈타인) ⑤ 볼셰비키 혁명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레닌) ⑥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리라 예측한 사람은 없었다. ⑦ 21세기 중반까지 인구가 폭발하여 세계 인구의 70%가 아사하고, 오존층 50% 이상이 파괴될 것이다.(20C 말의 지식인들. 이 예측이 들어맞을지는 알 수 없다.)
15. Max Weber, *Gesammelte Aufsätze zur Religionssoziologie I*, Tübingen, 1986, S. 534.

16. Richard Macksey. & Eugenio Donato(ed.), *The Structuralist Controversy: The Language of Criticism and Sciences of Ma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2, p. 248.
17. 김준오, 『도시시와 해체시』, 서울: 탐 출판사, 1992, p. 17 참조.
18. Richard Lehan, *The City in Literature*, Berk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p. 3.
19. 김준오, 앞의 책, p. 18.
20. 1950년대 김성환의 풍자 소설과 그 단명성을 상기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21. 박영희,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 『통합연구』 22호, 통합연구학회, 1994, pp. 105-148.
22. 대중문학연구회(편), 『대중 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평민사, p. 27.
23. Antony Easthope, 임상훈 역, 『문학에서 문화 연구로』(*Literary into Cultural Studies*), 서울: 현대미술사, 1994, pp. 200-202, 207 참조. Douglas Kellner, 김수정, 정종희 역, 『미디어 문화』(*Media Culture: Cultural Studies, Identity and Politics between the Modern and the Postmodern*), 서울: 새물결, 1997, pp. 33-102.
24. 최혜실, 『디지털 시대의 문화 예술』,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9, pp. 238-260.
25. A.E.Stanley, *Hyper Talk & Hyper Text*, London: Butterworth-Heinemann Ltd, 1992, pp. 271-281 참조.
26. Steven Johnson, *Interface Culture*, San Francisco: Harper Edge, 1997, pp. 138-172 참조.
27. 목영해, 『현대 상대주의 철학과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1998.
28. 이정호, 앞의 책, pp. 22-23.
29. 이 대화는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syceretism)을 지향하는 종교 상대주의 · 자유주의 · 신경전주의, 정치 신학 · 토착화 신학 · 여성 신학적 문화와의 타협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전광식,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기독교세계관적 비판”, 『통합연구』 22호, pp. 57-63.
30. 김영진, 『동양과 서양』, 서울: 지식산업사, 1993.
31. 김봉균, 『한국 소설의 기독교 의식 연구』, 서울: 민지사, 1997, pp. 61-93.
32. Graeme Turner, *British Cultural Studies*(second edition), New York: Routlege, 1996, pp. 215 -235. 이정호, 앞의 책, p. 153 참조.
33. ‘mammoth · money, screen · sports · sex’ 를 두고 이르는 말이다.
34. 이정호, 앞의 책, pp. 158-159 참조.
35. 손봉호, “철학의 문화관”, 김광익 외, 『문화의 다학문적 접근』, 서울대학교 출

관부, 1998, pp. 53 -56 참조.

36. Alan Sokal and Jean Bricmont, 이희재 역, 『지적 사기』(*Fashionable Nonsense: Postmodern Intellectuals' Abuse of Science*), 서울: 민음사, 2000, pp. 46-59 참조.

참고문헌

1. 김광익 외, 『문학의 다학문적 접근』,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2. 김봉균, 『한국 소설의 기독교 의식 연구』, 서울: 민지사, 1997.
3. 김성기 외,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1994.
4. 김준오, 『도시사와 해체시』, 서울: 탑 출판사, 1992.
5. 대중문학연구회(편), 『대중 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평민사, 1995.
6. 목영해, 『현대 상대주의 철학과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1998.
7. 우한용, 『문학 교육과 문화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8. 이정호, 『포스트모던 문화 읽기』,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9. 최혜실, 『디지털 시대의 문화 예술』,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9.
10. 태혜숙, 『미국 문화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증명, 1997.
11. 통합연구학회, 『통합연구』 22호, 1996.
12. A.E.Stanley, *Hyper Talk & Hyper Text*, London; Betterworth-Heinemann Ltd., 1992.
13. Alan Sokal & Jean Bricmont, 이희재 역, 『지적 사기』, 서울: 민음사, 2000.
14. Anthony Easthope, 임상훈 역, 『문학에서 문화 연구로』, 서울: 현대미학사, 1995.
15. Chris Jenks, *Culture*, London: Routledge, 1993.
16. Donato(ed.), *The Structuralist and Controversy: The Language of Criticism and Sciences of Ma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2.
17. emerge 새천년, 중앙일보, 2000. 1.
18. Graeme Turner, *British Cultural Studies*, second ed., New York: Routledge, 1996.
19. July Rivkin & Michael Ryan(ed), *Literary Theory: An Anthology*, Massachussets: Blackwell Publishers Inc., 1998.
20. Max Weber, *Gesammelte Aufsaltze zur Religionssoziologie I*, Tübingen,

- 1986.
22. Peter Brooker, *A Concise Glossary of Cultural Theor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23. Richard Lehan, *The City in Literature*, Berk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24. Samuel Huntington, 이회재 역, 『문명의 충돌』, 서울: 김영사, 1996.
25. Steven Johnson, *Interface Culture*, San Francisco: Harper Edge, 1997.

김봉군 / 서울대학교 국어과, 법학과를 거쳐 서울대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문학평론가, 세계한민족통일학회 준비위원장, 가톨릭대 인문대학장 역임.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객원교수, 현재 가톨릭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저서에 『문장 기술론』, 『문학개론』, 『한국현대작가론』, 『한국소설의 기독교의식 연구』 등 외 다수논문.